

1 본회소식



▲모교가 마련한 포토존에서 환호하는 2021년도 전기 졸업생들



2020년도 감사 실시

본회(회장 권영걸)는 지난 2월23일 오전10시45분 강남구 역삼동 소재 본회 선릉오피스에서 본회 및 본회 산하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SAP)에 대한 2020년도 사업 및 회계 감사를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날 본회 이종복(62음미)·김홍규(83음미) 감사와 (사)에스아트플랫폼 김소선(63조소) 감사를 비롯해 본회 권영걸(SAP이사장 겸직) 회장, 황현수·김미혜 상임부회장, 이순영 사무국장, 신지영 사무차장, 한현정·최현주·장주연 간사 등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본회와 (사)에스아트플랫폼이 2020년도에 추진했던 업무내용 보고와 회계보고가 진행되었다.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주요 사업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등을 2시간에 걸쳐 점검한 후, 본회 이종복·김홍규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었으며 여러 가지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고,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음”이라

고 총평했으며, SAP 김소선 감사는 “예산집행이 규정에 맞게 잘 처리되었으며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음, 코로나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일을 엄정하게 잘 진행하였음”이라고 총평했다.(2020년도 사업내역 2p참조)



모교 새내기생활백서 제작지원

본회는 지난 2월 모교 학생회 제37대 운영위원회(의장 임유리/19디자인)의 ‘미술대학 새내기 생활백서’ 제작을 지원했다. 총 84페이지의 새내기 안내책자에는 미술대학 내규를 비롯해 코로나 예방수칙, 맛집 추천, 학교생활 팁, 수강신청 방법, 학교 관련 사이트 소개, 학생증 발급 방법, 동아리 소개, 미술대학 내 시설 및 장비 매뉴얼, 미술대학 지도 등 새내기들이 학교생활에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각 과 별 회장과 부회장 등 10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3명의 책자디자인 팀원이 모여 제작한 새내기 안내책자는 각 과 사무실에서 배포되고 있다.

운영관리



▶**회의개최** : 2020년도 정기총회 및 이사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하고, 5월28일 본회 관악오피스에서 2019년도 사업 및 회계 감사 실시
▶**선릉오피스개소** : 모교 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해 8월13일 기존 관악오피스를 50동 205호로 축소이전하고,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인근에 선릉오피스 개소 근무시간을 주 2회에서 3회로 확대(화수목 오전10시~오후5시)

아카이빙사업

ART ON THE LINE

2020.10.20 - 11.20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온라인 동문전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Fine Arts Alumni Association

▶**온라인동문전 개최** : 자체 제작한 사이트를 통해 10월20일~11월20일 온라인동문전 'ART ON THE LINE'을 개최. 약 400명의 회원이 참가했으며, 기간 중 방문수 2만5천여회

▶**아카이브** : 6월 동문작품집 발간 및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아카이브사업위원회(위원장 유인수/66회화)를 구성. 온라인동문전을 기반으로 본회 홈페이지에 'ARCHIVE'를 개설하고 작고동문 자료 추가. 시각예술분야 동문 2500여명의 자료를 수집



▶**동문작품집 발간** : 12월1일 동문작품집 '서울대미술인 1946-2020'을 발간. 온라인동문전 참가동문에 작고동문과 원로동문을 추가해 총 776명의 작품과 약력을 수록.

6개월에 걸친 자료수집 및 편집,디자인 작업을 거쳐 한정판 1천부 제작(하드커버 204P)

모교지원

▶**특지장학금 수여** : 모교 재학생(석사과정 포함) 각과 1명씩 총 5명에게 특지장학금 총 500만원을 수여



▶**학생회 지원** : 2020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새내기 웰컴드링크' 행사 진행. 새내기 전원에게 커피쿠폰을 제공하고, 감사인증샷 중 우수작 화방쿠폰시상. 또한 학생회 관인을 제작해 증정

▶**명절선물 증정** : 설날과 추석에 모교 경비실 및 미화실 근무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달하고 노고를 치하

회원관리 및 홍보



▶**신입회원 기념품증정** : 본회 신입회원이 되는 2020년도 모교 졸업생(석박사포함) 들에게 최초로 입회기념품 증정(기념품사진=동문 동양화그룹 '오색빛담'이 제작한 조선의지도 탁상형 달력)

▶**축하기 제작** : 기존 근조기 외에 축하기를 제작해 결혼 등 회원 경사시 배송

▶**E-NEWS 발간** : 3월부터 매달 온라인소식지

'서울미대동창회 E-NEWS' 발간, 3천여명에 이르는 동문 등에 발송

▶**SNS 운영** : 네이버밴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카페 등 SNS계정을 만들어 동문들과 소통

▶**홈페이지 제작** : 홈페이지를 자체제작, 작품아카이브와 비즈코너 등 운용

사회공헌사업



▶**미술교육지원** : 8월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에서 여름방학 미술특강을 실시. 본회 권영걸 회장과 학생들의 간담회(위 사진) 및 오리엔테이션, 벽화에 대한 이론적 이해, 작품 구상과 제작 등 단계별로 수업을 실시. 선우향(91서양) 동문 등의 지도하에 학생 17명이 공동작품 제작 참여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 후원** : 지속사업으로 제16회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 후원. 대상(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장상) 시상



▶**서울미술나눔 자선전시** : 지난해 12월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여명학교 후원을 위한 서울미술나눔 자선전시'를 개최, 미술교육 지원으로 여명학교에서 제작된 학생들의 공동벽화작품과 동문작가들의 작품을 전시. 조성된 기금은 여명학교에 전달 예정

서울대총동창회 협력사업

▶**캘린더작품 선정** : 총동창회 2021년도 캘린더에 수록될 작품선정 의뢰에 따라 모교학장, 서울대미술관장, 갤러리스트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수록작품을 선정. 선정작품 작가에게는 저작권사용료 지급

▶**장학기금마련전 및 미술아카데미** : 총동창회와 서울대동문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기금마련전 개최와 미술아카데미 개설을 확정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시행을 연기,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진행예정

비영리사단법인 운영

▶**사단법인 설립** : 1월 서울시로부터 에스아트플랫폼(SAP)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인가에 따라 법원에 등기완료(법인소재지/ 강남구 삼성동 밤부타워)

▶**공익법인 지정** : 9월2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공익법인으로 승인. 이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 세제혜택 등 가능

▶**수익사업개시 허가** : 서면총회를 거쳐 12월22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익사업개시에 대한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

▶**회원관리** : 서면총회를 거쳐 12월22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회원구분에 대한 정관변경허가를 받아 회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한 정회원(활동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확정(정회원 23명, 후원회원 105명)

▶**회의개최**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면총회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11월 임시총회를 서면으로 진행. 5월과 11월에 이사회 개최

▶**사무국 운영** : 4대보험적용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일자리지원금·두루누리 지원금 적용사업장으로 선정되어 매달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 또한 투명한 회계업무를 위해 '세무회계규범'과 업무용역 계약

▶**서울대미대동창회 지원** : 미술교육사업 및 서울미술나눔-자선전시, 온라인동문전, 서울대미술인 발간, 아카이빙사업, E-NEWS 제작, 홈페이지 관리 등 지원



안녕하십니까. 교무부학장을 맡고 있는 권대훈입니다. 먼저 동문 선후배 여러분과 동창회의 모교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미래의 발전과 전과 다름없는 훌륭한 인재 양성의 토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동창회보를 통하여 간간히 학교 소식을 접하셔서 알고 계시듯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미술대 역시 큰 고난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올해 역시 다수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기 수업이 주가 되는 미래의 상황 상 비대면 수업만으로 학사운영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기에 학교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업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하면서도 원활한 수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기실 사용에 있어서도 학년별, 주중 및 주말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실기 실습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후배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작업하길 기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미래는 타 단대에서 볼 수 없는 스트리밍 방식의 비대면 입학식을 시행하였습니다. 재학생과 함께 사회를 보고 채팅창으로 실시간 소통하며 동문 여러분의 동영상 축하 인사도 소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대면으로 입학식을 하여 얼굴을 마주하고 축하해주지는 못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미술대다운 창의적인 시도로, 입학식도 없이 학기를 시작한 타단대로부터 매우 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축하 동영상을 보내주신 동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는 50동 51동에 이어 52동의 리노베이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향후 단풍이 시작될 무렵 학교에 방문 하시면 모든 미래의 건물이 좀 더 깔끔한 모습으로 반겨드릴 예정입니다. 동문 선후배님들 역시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서울대 미술대학 학생들의 자랑임을 상기하시고 이 상황을 잘 이겨내시리라 믿으며,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되어 졸업미전 등의 행사로 직접 뵙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무부학장 권대훈

신임 부학장 권대훈(90조소) 동문은 모교 조소과에서 학사.석사를, 영국 런던대 슬레이드미술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아뜰리에아기(서울/2020), 라흐마니노프스갤러리(런던/2012, 2009), 브레인팩토리(서울/2012), 갤러리비원(서울/2012, 2010), 서초구민회관(서울/2004), 갤러리풀(서울/2000)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The Jack Goldhill Award(영국왕립미술원), RBS Bursary Award(영국왕립조각가협회) 등을 수상했다.



미술대학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이 인상적으로 내린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캠퍼스에 신입생들과 함께 봄기운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미술대학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신입생 입학식은 팬데믹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여 학생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52동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미래 캠퍼스도 새로운 모습으로 가을에 다시 태어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창작이라는 열정은 미술 대학을 움직이는 변하지 않는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봐도 많은 사회 문화 기술적 변화들이 있어왔지만, 미술은 끊임없이 인간의 표현과 창의 욕구를 표출하는 역할을 수행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4차 5차 산업혁명으로 이야기되는 앞으로의 변화에서도 그러할 것입니다. 미술대학이 앞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미술의 본질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고 미술대학의 미래를 만들어 갈 학생을 잘 양성하여야 합니다. 제가 앞으로 2년간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제가 맡은 학생 연구 부학장의 소임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수행하려고 합니다.

미술대학 동문 여러분들께서, 혹 제가 부족한 점 있거나 혹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귀를 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술대학이 동창회와 잘 협력한다면, 미술대학이 한걸음 나아가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생부학장 정의철

신임 부학장 정의철(88산디) 동문은 모교 디자인학부에서 학사.석사를, 'Institute of Design, I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Motorola HCI Lab., Research Associate', 'Institute of Design, IIT, Adjunct Faculty' 재직, 연세대 생활디자인학과 조교수, 학과장, 대학원부원장, 서울대 BK21 디자인사업단장을 지냈으며, Bauhaus 세종도시(학술부문)선정, Reddot Best of the Best, 산업통상부장관상, 연세대 우수강의교수상 을 수상했다.

2023 입학전형 개편

모교 입학전형이 개편된다. 모교는 2023학년도 부터 수시 일반전형으로 디자인과(실기 미포함) 신입생을 선발하고, 정시 일반으로는 동양화와 서양화와 조소과 공예과 디자인과(실기 포함) 신입생을 선발한다. 2022학년도는 수시 일반으로 공예과를 제외한 동양화와 서양화와 조소과 디자인과가 신입생을 선발하고, 정시 일반으로 동양화와 공예과 디자인과가 신입생을 선발한다. 모집인원 및 전형방법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은 2021년 4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전기 학위수여식

모교 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2월26일 코로나19로 인해 서울대 대표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학위수여식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모교는 지난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49, 50동 입구 옆 벽면과 74동 2층 오디토리움 앞에 포토존을 설치했으며, 졸업생들은 각자 정해진 기간에 학위복을 대여해 포토존에서 사진

을 찍으며 온라인졸업식의 아쉬움을 달랬다. 올해 모교를 졸업하는 졸업생은 학사과정 72명, 석사과정 21명, 박사과정 11명으로 총 104명이다.



리모델링 진행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모교 52동과 52-1동 리모델링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에 기존 공간을 사용하던 금속공예전공은 50동 3층으로, 도자공예전공은 220동 1층으로, 조소과는 74동 우석갤러리(1,2관) 및 205호 미술경영세미나실로 교실과 실기실을 이동하여 사용 중이다. 또한 51동 앞마당에 금속공예전공 실습장이, 74동 2층 야외공간에 도예전공 소성실이 세워져 부족한 실기 공간을 보충하고 있다. 공사는 올해 8월까지 예정되어 있다.



전기 학위수여식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는 제75회 전기 학위수여식을 2월26일 오전 10시 서울대 홈페이지와 유튜브채널에서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학사 2403명, 석사 1587명, 박사 763명 등 총 4753명이 학위를 받았다.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 학위 수여식은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식전 이벤트 영상으로 재학생, 교수, 직원 등의 릴레이 응원 인사와 음악대학 윈드앙상블의 축하연주가 선보였다. 본 영상에는 총장 학위수여 식사와 축하, 졸업생 대표인사 등이 이어졌다. 서울대는 이번 온라인 학위수여식을 학생 참여에 중심을 두고 지난 1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새내기 맞이 행사

21학번 신입생을 맞이한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연석회의)와 각 단과대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새내기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왔다. 연석회의는 지난 2월24일 비대면으로 '2021 미리배움터'를 진행하며 신입생을 환영했다. 행사는 오프닝.아이스브레이킹, 1부행사, 2부행사, 마무리시간으로 구성돼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조별게임과 동아리소개가 진행됐다. 단과대 차원의 새내기 행사는 대부분 취소됐던 작년 초와 달리, 올해는 사회대, 간호대, 경영대, 공대, 농생대, 사범대, 생활대, 수의대, 약대, 음대, 의대, 자유전공학부 등 대다수 단과대가 비대면으로 새내기맞이행사를 진행했다. 한편 미대는 자체 제작 콘텐츠로 새내기 맞이 행사를 대체했다. 미대 연석회의(의장 임유리)는 새터를 준비하기보다는 직접 제작한 안내책자를 배포했다. 미대 연석회의 임유리(19디자인) 의장은 "학과별로 신입생 맞이 비대면으로 진행됐고, 미대 차원에서는 안내 책자를 제작해 미대 지도, 학과별 생활 팁, 수강신청 방법, 학생증 발급 방법 등을 담았다"라고 밝혔다. 인문대 연석회의는 '인문대 새맞이 TF'를 조직해 새터를 대체

졸업생들이 참여하는 추억사진공모를 진행했다. 공모된 사진은 서울대합창단의 비대면 중창과 함께 이날 상영됐다. 올해 졸업생들이 제작한 영상(찾아가는 졸업식)도 선보였다. 한편 오세정 총장은 축하사에서 "불확실성을 창의성의 자원으로 바꾸어나갈 역량이 서울대 졸업생 여러분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정해진 길에 안주하지 말고, 새 시대를 헤쳐나가는 과감한 도전을 통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내 신속 유전자증폭검사 도입

서울대학교가 코로나19 선제검사인 신속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교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학생과 교수, 교직원을 대상으로 1~2주 단위로 주기적 검사를 실시해 대면수업을 재개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대는 지난달 대면실험 및 연구실 사용이 필수적인 공과대 및 자연과학대 구성원 5,500여명을 대상으로 신속PCR검사 시범 운영계획을 밝혔다. '신속PCR검사는 진단 정확도가 높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반PCR검사와 결과가 30분 내로 나오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신속항원검사의 장점을 합친 것으로, 서울대는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신속PCR검사를 하면 안전한 캠퍼스 구축이 가능하다는 지난 2월 중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진단시약 사용 승인을 요청했고 지난 2월24일 중대본은 신속PCR검사 교내 시행을 허용했다. 서울대는 교내 선별진료소가 관악구보건소 관리 아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미 관악구청과 보건소에도 협조를 구한 상태다. 서울대는 "이르면 3월 말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시범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신속 PCR을 도입하는 첫 기관이 된다.

할 인문대 유튜브 채널 '인문원정대'를 개설했다.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대면으로 신입생을 환영한 단과대도 있었다. 치의학대학원 학사과정 학생들은 지난 2월18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자연대는 2월 22~26일 자연과학관8에서 새내기들을 학과·부별로 분산해 '웰컴투 자연대 신입생 맞이' 행사를 대면으로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는 입장시 체온측정, 문진 표작성, 손소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부정입학 취소 학칙신설

서울대는 최근 입학생이 입시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학칙에 신설했다. 해당되는 부정행위는 입학전형에 위변조 등 거짓자료 제출, 입학전형에 타인이 대리응시,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공정한 입학전형 관리·시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지금까지는 입학모집요강을 통해 부정행위자의 입학취소 가능성을 명시해 왔다.

정시합격 삼수생 역대 최다

서울대는 2021학년도 정시모집을 통해 최초 합격자 803명을 선발했다. 삼수생 이상 합격자는 133명(16.6%)으로 정시결과를 발표한 2013학년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재학생 합격자는 298명(37.1%)으로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재수생은 339명(42.2%), 검정고시는 33명(4.1%)이었다. 수능 위주인 정시 일반전형 합격자 798명의 출신 고교 비율은 일반고(53.6%), 자율형사립고(26.3%), 자율형공립고(4%), 검정고시(4%), 영재고(3.1%), 외국어고(3.1%)등 순으로 나타났다.

정문앞에 관악산역

내년 개통을 앞둔 신림선 경전철의 서울대정문 앞 역명이 지난 2월7일 '관악산역'으로 확정됐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서울대 정문 앞 역명은 당초 서울대역도 후보에 올랐지만 2호선 서울대입구역과 헷갈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적으로 탈락했다. 2015년 9월 착공된 신림선은 여의도 샛강역에서 출발해 대방역과 보라매역, 신림역 등을 거쳐 서울대정문 앞까지 7.8km 구간을 잇는 노선으로 정거장은 총 11곳, 차량기지는



1곳으로 모든 구간이 지하화됐다. 특히 샛강역(9호선), 대방역(국철), 보라매역(7호선), 신림역(2호선) 등 4개 정거장에서 환승할 수가 있다. 한편, 신림선에 도입되는 경전철 차량은 3량 1편성이며, 총 12편성이 도입된다. 차량은 소음과 진동이 적은 고무차륜을 도입했고 무인운전시스템을 채택했다. 최고 운행속도는 시속 60km다.

서울대총동창회소식

장학금 548명에게 14억원 전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이희범)는 2021학년도 1학기 모교 학부생과 대학원생 총 548명에게 장학금과 생활비 장학금 등 14억여원을 지급했다. 장학생 중에는 학부 신입생 38명과 외국인 유학생이 포함됐다. 대학원은 석사과정 43명, 박사과정 12명, 석박사통합과정 12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이번 학기 장학금 수여식은 생략했다. 1980년 장학사업을 시작한 이래 총동창회는 지난해까지 1만4천명에게 누계 351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2015년부터는 한 해에 1천명이 넘는 장학생에게 장학금 3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총동창회에 설립된 특지장학금은 150개에 달한다. 이 중 98곳에서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임광수(48기계공학/임광토건 명예회장) 고문이 설립한 임광특지장학회가 가장 많은 55명의 장학생에게 총 1억6천만원을 지급했다. 특지장학금은 5천만원 이상을 기부하면 원하는 명칭으로 설립할 수 있다. 특정동문 또는 관악회와 결연을 맺어 지급하는 결연장학금은 183명이 받았다. 동문들의 십시일반으로 조성되고 있는 결연장학금은 월 30만원씩 6개월간 생활비를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총동창회 행사

3월 주요특강

(SNUA사수회 : 네 번째 수요일 개최)

일시 : 3월24일(수) 오전7시30분

장소 : SNU장학빌딩 베리타스홀(마포구 도화동 5호선 공덕역 8번 출구)

강사 : 안종배 한세대 교수

강의주제 : 코로나19로 인한 문명 대변혁과 미래 변화

참가비 : 무료(김밥 등 간단한 식사 및 도서 제공)

4월 조찬포럼

일시 : 4월8일(목) 오전7시30분

장소 : 더플라자호텔 11층 그랜드볼룸

강사 및 주제 : 미정

참가비 : 5만원(조찬 및 도서 제공)

공지사항

작품기증 이승연(61회화)



이승연 동문이 지난 3월11일 동문들을 위한 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본인의 작품 1점을 기증했다. 한양여자대학교 일러스트레이션과 명예교수인 이동문은 개인전 9회와 2008 제네바아트 페어에 참가했다, 한국화회는 창립전이후 참여했으며 한국미술협회, 한중미술협회, 한국화여성작가회, 가톨릭미술가회 회원으로 활동해 왔다.

회비납부자(2021.2.1-2.28)

- 평생회비 ●김휘재(12동양)
- 이사회비 ●이경석(84산대)

연회비	회원	3만원(평생회비 30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감사·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찬조금	상시 환영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대동창회)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내주신 회비와 찬조금은 동창회와 동문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를 납부하시면 본회 홈페이지(snuart.or.kr) 아카이브에 회원님의 작품, 저서 등 창작품이미지와 약력을 게시해드립니다. 회비납부 후 본회 메일(snuarta@naver.com)로 이미지(3점)와 캡션, 약력 등의 자료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올려드립니다. 기존에 업로드되어있는 회원님들은 요청하실 경우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드립니다.

서울대미술인 배부

본회가 출간한 '서울대 미술인 1946-2020'은 동문들의 인명록에 가까운 작품집으로 1946 입학년도부터 2020 졸업년도(석박사 포함)까지 모교에서 수학 후 활동하고 있는 천명에 달하는 작가들의 작품이미지와 약력을 수록했으며, 동문작품집으로는 역대 최대 분량입니다. 문헌참고 및 웹검색 등 6개월에 걸친 방대한 자료조사와 편집, 디자인 작업 끝에 완성된 이번 동문작품집은 서울대 미술인의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회화, 조각, 공예, 디자인, 건축 등 모든 시각예술분야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작품 이미지 또한 신작보다는 대표작으로, 학번순이 아닌 가나다순으로 수록했습니다(온라인전 참가회비 납부자는 무료증정)

▶배부처 : 본회 선릉오피스(운영시간/ 화,수,목요일 오전10시-오후5시)

강남구테헤란로311 아남타워1323(선릉역5번출구)

※배송요청시 문자(010-9469-8065)로 주소 보내주시면 착불배송해 드립니다.

축하기·근조기 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신청전화: 02-872-8065)

인스타그램 계정변경안내

본회 공식 인스타그램계정이 바뀌었습니다.

@snuartassociation → @snuartalumni

기존계정은 개인계정으로 바뀌었으니 동문들께서는 새로운 공식계정인 @snuartalumni를 팔로우 해주시면 됩니다.

동창회 SNS 가입안내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직접 전시, 행사, 애경사를 올려 동문들에게 알릴 수도 있습니다. 가입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ID예 : 김홍도(00동양)

동문사업체 소개

본회는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하여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동문께서는 본회 메일(snuarta@naver.com)로 성명(학번, 학과), 사업체 소개의 글, 이미지,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문사업체는 본회 홈페이지(snuart.or.kr) 동문사업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관문화훈장 추서 서세옥(46회화)



정부가 지난해 11월 별세한 서세옥 동문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월18일 오전 대한민국예술원에서 정부를 대표해 유족에게 훈장을 전수했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금관'은 1등급 훈장에 해당한다. 이번 금관문화훈장 추서는 1993년 국민훈장 석류장, 2012년 은관문화훈장에 이어 서세옥 동문에게 수여하는 세 번째 훈장이다. 고인은 전통 한국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표작 '사람들' 등 수묵 추상 작업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40여년간 모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2014년 자신의 시대별 대표작 등 핵심작을 추려 100점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하는 등 예술 나눔으로 한국 미술 발전에도 공헌했다. 정부는 이를 기리기 위해 금관문화훈장 추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2월18일 대한민국 예술원에서 열린 고 서세옥 동문 금관문화훈장 전수식에서 서동문의 부인인 정민자 여사(왼쪽 세번째)를 비롯한 유족에게 훈장을 전수했다.

21년만에 대구에서 개인전 권여현(81회화)



권여현 동문이 지난 3월1일부터 오는 4월25일까지 대구 봉산문화갤러리에서 초대전을 연다. 권동문은 5년 전 모교 출신으로는 반세기 만에 최초로 홍익대 회화과 교수로 임용돼 조명을 받은 바 있다.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그는 대구에서 유년·청소년기를 보내고 81년 모교에 입학했다. 동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원광대 미대, 국민대를 거쳐 2016년 홍익대로 자리를 옮겼다. 8년전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관련, 검찰이 장남 전재국씨 주거지 압수수색 때 그의 작품 다수가 나와 주목받기도 했다. 석남미술상(1991), 하종현미술상(2005) 등에 이어 2018년 한국미술평론가협회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했으며, 지금까지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지에서 44차례 개인전을 가졌다. 이번 전시는 봉산문화회관의 기획시리즈 '2021기억공작소 I'의 하나로, 2호~400호 작품 40여점을 선보인다. '눈 먼 자의 숲에서 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한국관광100선 선정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1~2022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한국관광 100선'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꼭 가봐야 할 대표 관광지 100개소를 2년에 한 번씩 선정해 국내외에 홍보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는 6개소가 선정됐다.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점검, 3차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지난 2018년 3월에 개관한 시립미술관으로, 미술애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꾸준한 사랑을 받는 남원의 관광명소다. 남원 출신의 김병종(74회화/서울대 명예교수) 동문이 유년기 시절 시골에서 자라면서 늘 갈망했던 문화예술 혜택에 대한 염원을 담아 고향인 남원시에 4백여점의 작품과 5천여점의 자료를 기증하면서 건립이 이뤄졌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우리 세대들에게 '생명'과 '자연'을 주제로 한 김병종 작가의 작품들과 함께 느리게 걸으며 사색을 즐기고, 진정한 치유를 베풀어 가고 싶은 곳으로 남원시립김병종 미술관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1~2022 한국관광 100선' 선정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www.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사를 보라' '낯선 숲의 일탈자들' '철학자 시리즈' 등 대다수가 근작들이다. 권동문은 본인 작업에 대해 "제 작업은 장자의 호접몽이나 매트릭스의 공간을 예로 들면 가장 설명하기 쉽습니다. 현실이 꿈이고 꿈이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기 때문이지요. 꿈의 생성과정은 제 작업의 중요한 설립 근거입니다. 개인과 사회적 욕망은 체제나 관습, 규정에 의해 억압되거나 감시받는데, 욕망의 다른 단어로 사용하는 감각은 감시의 그물망을 속이거나 피하고, 일탈자의 밈(meme)적 행동으로 위장하여 표출됩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동문은 '낯선 숲의 일탈자들' 작품을 설명하면서 프랑스 68혁명 당시 봉기했던 젊은이들이 좌절과 실패를 겪으면서 경험한 개인의 일탈적 상황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했다. '눈 먼 자의 숲에서 메두사를 보라' 작품은 숲과 칠푼 등 서양 고전 명화에 등장하는 신화적 느낌을 준다. 권동문은 "우주의 생성이 수만년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빅뱅이론에 의하면 찰나에 있는 수많은 물질이 한 번에 폭발하여 1초 만에 생성된다"면서 "화가의 붓질 속에서도 미리 내재돼 있는 잠재성이 일회성인 기운 생동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했다.



유인수개인전

- ▶ 전시기간 : 3.30~4.11
- ▶ 전시장소 : 세종갤러리
서울중구퇴계로145, 세종호텔1층
- ▶ 관람시간 : 11:00~20:00
- ▶ 문의 : 02-3705-9021



한국문화재단 AG신진작가대상 공모전

- ▶ 접수기간 : 2021.03.01.~04.05.
 - ▶ 지원사항 : 대상 500만원(작품매입상),
익년도 개인전 등
 - ▶ 지원자격 : 순수미술 창작 전 분야 작가
 - ▶ 제출서류 : 경력서, 포트폴리오
- 자세한 내용은 www.galleryag.co.kr 참고

바디페인팅 뷰티쇼 개최 안영나(80회화)



안영나 동문이 지난 2월 8~9일 서울 노원아트갤러리에서 '손에 손잡고-바디페인팅 뷰티 쇼'를 진행하였다.

이번 쇼는 안동문의 초대개인전 'FLOWER NO FLOWER-꽃의 격려'전 작품들을 배경으로 열렸으며, 꽃과 여인의 융합이라는 테마로 바디페인팅과 뷰티아트를 표현했다. 순수미술과 메이크업 뷰티아트를 융합하여 선보였다는 점에 주목을 받았다. 서원대학교 뷰티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안동문은 "바디페인팅은 메이크업의 심화과정이다.

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창의적으로 극복하고자 이 쇼를 진행하게 되었다. 꽃 속의 여인, 여인 속의 꽃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를 담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2월 2일~9일 열린 개인전에서 안동문은 한국인의 정서가 깃든 꽃 작품 등 신작 20여점을 선보였다. 한지에 먹과 채색, 빗자루와 비닐에 먹을 넣어 짜면서 뿌리는 드립핑기법과 중첩, 생략 등을 통해 현대와 전통 기법의 조화를 모색했다. 조지메이슨대학 교환교수를 지낸 안동문은 가나 아트스페이스와 선화랑 개인전, 600여회의 국내외 기획전에 초대됐으며, 피라미드 아트란틱 paper making workshop, 야도스튜디오, 오픈스튜디오, 하슬라국제레지던시프로그램 참가, 폴록-크레스너재단상을 수상했다.

재능나눔실천 정수아(82응미)



정수아(오산대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교수)동문은 꾸준히 재능나눔을 실천해온 인물이다. 정동문의 재능나눔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로고를 제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정동문은 오산대 기획처장으로 있을 때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을 맡게 되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발전협의회 로고 역시 직접 제작했다. 20주년을 맞이한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가 새로운 로고를 필요로 했을 때도 정동문은 재능나눔을 계속 이어갔다. 최근 그는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발전협의회(COLIVE)'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가 재능나눔 캠페인'에도

동참했다. 지역 재능나눔 전문가를 발굴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캠페인에 보탬이 되고자 한 것이다. 정동문은 "처음엔 재능나눔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었다. 할 수 있는 것을 돕다 보니, 결국 재능나눔이 된 것 같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위로하게 되는 좋은 일"이라고 했다. 그는 전문대와 관련된 여러 단체의 로고를 제작하면서 정동문의 명성은 나날이 커졌다. 최근 제작한 'K-Club' 로고도 정동문의 결과물이다. K-Club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98개 우수 중소중견기업(매출 150억원 이상)의 패밀리기업들이 별도 사단법인을 구성해 운영하는 단체다. 정동문은 "전문대, 우수 중소중견기업들의 상생을 위해 K-Club 로고를 제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전문대 교수로서 나부터 잘해야 전문대와 K-Club의 협력이 더 잘 될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녀들의 성화로 몽이라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출발한 작업으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작품에 등장하는 대상이 늘어났다. 중산층 가정과 일인 가구 등의 사회적 양상을 작업에서 볼 수 있는 이유다. 그렇게 만난 반려동물은 각기 다른 가정의 모습만큼 종류도 여러 가지였다. 강아지, 고양이 외에 기니피그, 토끼, 거북이, 이구아나도 있었다. 주인을 만나게 된 사연과 이후의 이야기도 다양했다. '선규네 가족과 코코와 건달이'(2014)는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 가족의 초상이다. 사진 안에는 엄마와 아빠, 두 명의 딸과 세 명의 아들, 그리고 강아지들이 보인다. 한편 윤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뒤 홍익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과 및 사진디자인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뉴욕 스킴오브비주얼아트에서 사진, 비디오 및 연관 매체를 전공했다. 그는 '공간-사람-공간 II', '핑크 & 블루 프로젝트' 등의 개인전을 열고 다수 단체전에 참여했다. 2018년 일우사진상, 2012년 홍콩 소버린예술재단 아시아작가상 등을 받았다. 필라델피아미술관, 보스턴미술관 등 주요 미술기관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인간 삶과 사회의 관계 윤정미(88서양)



윤정미 동문은 일찍부터 인간 삶과 사회 구조, 그사이 관계 등을 작업에서 다뤘다. 초기작인 '동물원'(1998~1999) 연작에서는 동물원에서 사육하는 동물들을 포착했다. 사회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 삶의 은유였다. 이어서 '자연사박물관'(2001) 연작에서는 자연사박물관에서 전시하는 야성을 잃은 동물들을 촬영했다. 인간의 기준 체계 아래 동물을 관찰의 대상으로 대하는 모습을 내보였다. 다음 대표작인 '핑크 & 블루 프로젝트'(2005~)에서는 아이들의 특정 색에 관한 선호를 담았다. 여자아이의 방에는 분홍색 물건, 남자아이의 방에 파란색 물건이 가득한 모습을 기록했다. 사회적으로 젠더 고정관념을 강요받은 결과를 드러낸 것이다. 윤동문이 2015년에 발표한 연작 '반려동물'(2008~2015)은 자

녀들의 성화로 몽이라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출발한 작업으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작품에 등장하는 대상이 늘어났다. 중산층 가정과 일인 가구 등의 사회적 양상을 작업에서 볼 수 있는 이유다. 그렇게 만난 반려동물은 각기 다른 가정의 모습만큼 종류도 여러 가지였다. 강아지, 고양이 외에 기니피그, 토끼, 거북이, 이구아나도 있었다. 주인을 만나게 된 사연과 이후의 이야기도 다양했다. '선규네 가족과 코코와 건달이'(2014)는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 가족의 초상이다. 사진 안에는 엄마와 아빠, 두 명의 딸과 세 명의 아들, 그리고 강아지들이 보인다. 한편 윤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뒤 홍익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과 및 사진디자인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뉴욕 스킴오브비주얼아트에서 사진, 비디오 및 연관 매체를 전공했다. 그는 '공간-사람-공간 II', '핑크 & 블루 프로젝트' 등의 개인전을 열고 다수 단체전에 참여했다. 2018년 일우사진상, 2012년 홍콩 소버린예술재단 아시아작가상 등을 받았다. 필라델피아미술관, 보스턴미술관 등 주요 미술기관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정, 배려, 이해가 전 작업 과정에서 느껴졌다. 비접촉 시대에 미술전시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변화할지 알 수 없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 미술전시는 현재 마주한 어려움에 도전하고 미술관의 문턱이나 경계를 넘어 밖으로 향한다. 나는 항상 안과 밖, 그리고 경계에 관심이 있다. 내가 전시 안을 담당했다면, 커스텀멜로우가 전시 밖을 담당했다. 일반 대중이 미술을 마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번 협업이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협업 컬렉션은 티셔츠, 코트와 같은 의류부터 양말, 캡 등 액세서리까지 총 30여개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상품은 커스텀멜로우 온라인샵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온/오프라인 아트샵에서 구매할 수 있다.

협업컬렉션 양혜규(90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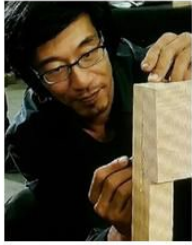
양혜규(90조소) 동문과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 남성복브랜드 커스텀멜로우의 협업상품을 판매하는 팝업스토어가 지난 2월부터 3월2일까지 광고 갤러리에서 열렸다. 지난해 10월 커스텀멜로우는 양동문과 협업 컬렉션을 선보인 바 있다. 양동문이 국내브랜드와 진행한 협업은 이번이 처음으로, 'MMCA 현대차 시리즈 2020: 양혜규—O₂ & H₂O'에 선보인 여덟 점의 작품, '소리 나는 가물家物', '침묵의 저장고 - 클릭된 속삭임', '오행비행', '디엠지 비행', '전시 속 전시'로 마련된 목우공방의 '108 나무 순가락'을 중심 모티브로 협업을 진행했다. 상품 라벨에는 작품의 상세설명을 담아 협업의 의미를 더하고 일종의 '걸어 다니는 미술관'을 표현하기도 했다. 양동문은 "커스텀멜로우는 브랜드의 현대미술에 대한 애

정, 배려, 이해가 전 작업 과정에서 느껴졌다. 비접촉 시대에 미술전시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변화할지 알 수 없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 미술전시는 현재 마주한 어려움에 도전하고 미술관의 문턱이나 경계를 넘어 밖으로 향한다. 나는 항상 안과 밖, 그리고 경계에 관심이 있다. 내가 전시 안을 담당했다면, 커스텀멜로우가 전시 밖을 담당했다. 일반 대중이 미술을 마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번 협업이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협업 컬렉션은 티셔츠, 코트와 같은 의류부터 양말, 캡 등 액세서리까지 총 30여개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상품은 커스텀멜로우 온라인샵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온/오프라인 아트샵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정, 배려, 이해가 전 작업 과정에서 느껴졌다. 비접촉 시대에 미술전시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변화할지 알 수 없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 미술전시는 현재 마주한 어려움에 도전하고 미술관의 문턱이나 경계를 넘어 밖으로 향한다. 나는 항상 안과 밖, 그리고 경계에 관심이 있다. 내가 전시 안을 담당했다면, 커스텀멜로우가 전시 밖을 담당했다. 일반 대중이 미술을 마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번 협업이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협업 컬렉션은 티셔츠, 코트와 같은 의류부터 양말, 캡 등 액세서리까지 총 30여개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상품은 커스텀멜로우 온라인샵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온/오프라인 아트샵에서 구매할 수 있다.



행복한 목수 이정섭(91서양)



이정섭 동문은 2002년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도관리에 내촌목공소를 설립했다. 내촌목공소는 이동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손수 지은 목재건물로, 입구의 사무실 겸 작은 전시실, 온도·습도가 쾌적하게 조절되는 중간의 너른 작업장과 잇대어 나오는 큰 전시실, 문밖의 야외 목재창고, 그리고 안쪽 산기슭에 스물대여섯 평 되는 살림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동문은 1998년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해 그림을 그리다 한옥 짓는 일을 배웠고,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동문은 집짓기에 있어서 기획 디자인 설계부터 최종 시공까지의 전 과정을 '일괄작업'하는 곳은 국내에서 내촌목공소가 거의 유일하다고 말하며, "이러한 '일괄집짓기'는 비효율적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집을 지어온 본래의 모습입니다. 내촌목공소는 이 방식의 집짓기가 집을 회복

시킨다고 믿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동문이 짓는 집은 2006년 국내 최초로 엔지니어드 목재(함수율 12%)를 사용한 집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 제로, 포르말데하이드 Free집을 짓는다. 이동문은 한국 건축의 기본은 이 땅의 자연 속에서 과하지 않은 규모와 공간이 우리들에게 주는 실존적인 감동이라 생각한다고 말한다. 또한 한옥을 통해서 '사람이 사는 집'의 한 전형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문의 내촌목공소는 토요일에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목공소 내의 건축과 가구를 둘러보고 나무 이야기를 듣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소요시간은 약 2시간, 요금은 1인 5만원이다. 현장예약은 불가하며, 온라인 및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예약문의 : info@thenaechon.com / 033-433-5583)

위메프 대표이사에 선임 하승(96산디)



하승(위메프 부사장) 동문이 지난 2월8일 위메프 신입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됐다. 이로써 위메프는 지난해 8월 시작한 직무대행 체제를 종료하고, 하승 신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한다. 2015년 위메프에 합류한 하동문은 마케팅과 사업분석, 직매입, 물류업무를 총괄했다. 2017년부터 전략사업부문을 맡아 플랫폼 및 신사업 개발, 제휴사업 등을 주도했다. 하동문은 "업계 최고 수준의 큐레이션 서비스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이며, 철저하게 사용자 관점에서 경쟁력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에 투자하겠다"며 '기술 기반 플랫폼'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1977년생인 하동문은 1996년에 모교 산업디자인과에 입학했으며, 1998년 휴학 후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했다. 대학 졸업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원더피플 경영기획실장, 원더홀딩스 이사로 재직했으며,

2014년까지 대한민국 최초의 독립야구단인 고양 원더스의 단장을 겸직했다. 2015년 위메프로 자리를 옮긴 이후 영업, 마케팅, 지표관리, 직매입 등 사업영역부터 광고플랫폼, 간편결제 등 신사업과 플랫폼 영역까지 담당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활동해왔다. 한편 하동문은 2019년부터 2020년 11월말까지 키움 히어로즈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왔다. 하동문은 선임된 이후 곧 대대적인 위메프 체질 개선에 나섰다. 위메프는 기존 직급 체계를 없앴다고 지난 2월17일 밝혔다. 이번 직급 개편은 '새로운 위메프의 재도약을 향한 하동문의 첫 시도로 내부 기대감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원 모두가 연차나 경력 등에 얽매이지 않고, 역량과 성과만으로 본인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일에만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구성원과 각 조직간 협업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메프 관계자는 "구성원 개개인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성과에 기반해 의사결정 권한과 보상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라펜전속모델 계약연장 임성빈(빈지노/08조소)



지난 2월 남성 뷰티 브랜드 그라펜이 전속모델 래퍼 빈지노와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라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11월에 그라펜 모델로 선정된 빈지노는 감성적이면서도 남성 뷰티를 선도하는 이미지로 '남자 관리의 기준' 슬로건을 가진 그라펜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며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 등 남성 뷰티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빈지노와 함께 그라펜의 고유한 색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 전했다. 2011년 론칭한 그라펜은 빈지노와 함께 남성 향수, 스킨케어, 메이크업 등 다양한 남성 화장품들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기존 BB크림과 달리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커버스틱, 자연스러운 발색

의 핸섬 트리플 립밤, 단계별 스킨케어로 카밍 그린 미스트와 세럼, 스킨 및 로션 등 다양한 남성 화장품들을 출시하며 타 브랜드와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또한 국내 드럭스토어, 온라인몰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 해외진출에 성공하며 글로벌 남성 그루밍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그라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동문은 08년 모교 조소과에 입학(이후 휴학 및 중퇴), 2009년 프라이머리 스쿨의 두 번째 앨범 [Daily Apartment]를 통해 공식적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프라이머리 스쿨의 메인 MC로 등장하면서 많은 힙합 애호가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에픽하이(Epik High), 슈프림팀(Supreme Team), 도끼 등의 앨범에 참여하고, 시미 트와이스(Shimmy Twice)와의 유닛인 재지팩트(Jazzyfact) 활동을 통해 단숨에 정상급의 래퍼로 성장했다. 2012년 7월, 자신의 이름을 건 첫 번째 EP [24 : 26]을 발표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에르메스재단미술상 수상 류성실(13조소)



류성실 동문이 지난 3월2일 제19회 에르메스재단 미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단은 "류성실 작가는 일종의 '1인 미디어 쇼'를 통해 예술과 비예술, 실체와 허구 등 기존의 이분법적 질서를 교란시키는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준다"면서 "그는 자신의 가족사와 동시대 한국의 정치·사회적 이슈들, 전통적 형태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조합하고 재구성해 지역성과 보편성을 모두 함축하는 작품세계를 구축해 왔다"고 평가했다.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를 수료한 류동문은 2019년 대안공간 탈영역우정국에서, 2020년 웹 상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합정지구, 일민미술관, 북서울

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보안여관, 아르코미술관, 대림미술관 등 수차례의 그룹전 및 협업전시회에 참여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18년 서울문화재단 최초예술지원, 2019년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단 지원사업(다모객), 2020 서울문화재단 창작활동지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2000년 에르메스 코리아가 외국 기업 최초로 한국 미술계 지원을 위해 제정한 에르메스재단미술상은 첫째 장영혜를 필두로 김범, 박이소, 서도호, 박찬경, 구정아, 임민욱, 김성환 등을 수상자로 배출했다. 수상자는 2천만원의 우승상금과 함께 오는 2022년 에르메스 도산파크 내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개인전 기회를 얻게 된다. 심사위원은 독립 큐레이터인 김윤경 에르메스 큐레이터, 2003년 수상자인 양혜규 독일 슈테델슐레 교수, 유진상 계원예대 교수, 이탈리아 출신의 조각가 주세페 페노네, 프랑스 태생의 화가 장미셸 알베올라, 에르메스 재단의 파스칼 위사르 부대표가 맡았다.

신간



그림과 시 시로 쓴 미술이야기

장소현(65음미) 저/ 해누리출판사 발행

장소현 동문의 8번째 시집 ‘그림과 시’는 다양한 작가의 미술작품에서 받은 느낌과 생각을 풀어쓴 시 40편과 그림을 함께 엮은 책이다. 장동문은 “그림 안에 시가 있고, 시 속에 그림이 있다는 옛 어른들의 가르침에 깊이 공감해서 시작한 작업”이라며 시와 그림을 한 책에 담게 된 배경을

소개했다. 또한 “미술평론이란 작가와 관객 사이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같은 것인데, 평론가들이 쓴 글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며 시로 평론을 쓴 이유를 밝혔다. 책에는 장동문이 좋아하는 서양 미술가 고흐, 로트레크, 모딜리아니 등 10명과 한국 미술가 8명이 실렸고, 캘리포니아 한인 화가 12명의 작품과 시도 실었다. 모교와 와세다대 대학원 문학부를 졸업한 장동문은 LA에서 극작가, 시인, 언론인, 미술평론가로 활동하는 자칭 문화잡화상으로 시, 화곡, 칼럼, 소설, 콩트, 미술 서적 23권을 펴냈고, 희곡 50편을 공연, 발표했으며, 고원문학상과 미주가톨릭문학상을 수상했다.



5분 컬러링북 : 동물 컬러링

김충원(79음미) 저 / 진선아트북 발행

‘5분 컬러링북-동물 컬러링’은 동물 밑그림을 사용하여 색연필 채색을 연습하는 컬러링북이다. 초보자도 쉽게 그릴 수 있는 매력적인 동물 컬러링 도안들이 가득하다. 햄스터부터 얼룩말과 치타, 물개와 범고래까지 60여 종의 동물을 스윅글 스트로크, 블렌딩 기법 등을 사용해 컬러링할 수 있다. 저자 김충원 동문은 모교와 동 대학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했으며, 명지전문대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방송과 출판 등을 통해 국민미술선생님으로 불리며 250여권의 각종 미술전문서적과 창의력 개발 교재를 발표했다. 90년대 초, ‘김충원 미술교실’ 시리즈를 필두로 어린이 미술교육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으며, 2007년부터 발간된 ‘스케치 쉽게 하기’, ‘이지 드로잉 노트’ 시리즈는 취미미술 교양서의 고전이 되었다. 최근에는 ‘5분 스케치’, ‘5분 컬러링북’ 시리즈를 통해 누구나 쉽게 미술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다섯 번의 개인전을 연 드로잉아티스트이자 전 방위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미술교육에 관한 강연 및 집필에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Into the Clouds: New Media Art 2021

김리진(01조소) 저 / CICA Press 발행

이 책은 2020 CICA뉴미디어아트컨퍼런스, 아트텔레포티드뉴욕 2021, 클라우드: 제6회 뉴미디어아트국제전에 참여한 65인의 국내외 뉴미디어 아티스트들을 소개한다. 매년 60여명의 국내외 뉴미디어 아티스트들을 소개하는 CICA Press의 ‘뉴미디어 아트’ 시리즈는 2015년부터 김리

진 동문이 기획, 발행하고 있다. 아트디렉터이자 아티스트로 뉴미디어 아트와 시각문화 연구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김리진 동문은 모교 졸업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원에서 뉴미디어와 조소를 공부한 후 버지니아 커먼웰스대에서 Media, Art, and Text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4년부터 CICA미술관에서 아트디렉터로 근무하면서, CICA 뉴미디어 아트 출판 및 국제전, 아트 옐로 북,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 등과 같은 다양한 실험 출판 및 국제전을 기획해 왔다. 또한 현재 김포산업진흥원 ‘김포시 5대 대표산업혁신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권력의 미학 : 18세기 회화부터 퍼포먼스 아트까지 미술로 본 사회, 정치, 여성

황귀영(02조소) 외 옮김/ 캐롤 던컨 저/ 경당 발행

황귀영 동문이 공동번역한 이 책은 미술작품이 제작되고, 보여지고, 이야기되는 과정을 통해 예술이 작동하는 정치, 사회, 문화적 동기와 그 작동 메커니즘을 다층적으로 분석한 캐롤 던컨의 주요 논문과 비평문을 모은 책이다.

18~19세기 프랑스 미술에 투영된 가부장제와 이를 통해 생산된 여성 이미지, 20세기 초반 유럽과 미국 전위미술에 나타난 여성의 성적 대상화, 이에 더해 그런 여성의 성적 대상화가 미술관이라는 공간을 통해 일종의 공적 의례가 된 상황까지 담은 글까지,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미술사는 물론 미술비평의 고전으로 추앙받고 있다. 한편 저자 던컨의 제자이자 동료로서 이 책을 공동번역한 황귀영 동문은 “미술은 누구의 욕망에 봉사하고 있는가?”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에 대해 던컨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워왔는지를 가까이에서 보아온 연구자이다.

전시

성명(가나다순)	전시명(개인전)	전시기간(2. 01~28)	전시장소
권여현(81회화)	낮선 숲의 일탈자들	02.17 ~ 04.25	봉산문화회관 4전시실
김남표(91서양)	회화적 묵상 The Malerisch Meditation	02.10 ~ 03.21	뮤지엄 다: 2층 기획전시실
김태연(06동양)	김태연전	02.25 ~ 03.07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김화현(98동양)	Girls, Rock the Boys	02.23 ~ 03.13	프로젝트 스페이스 영등포
박소현(80회화)	수목구멍도	02.16 ~ 02.20	부산 화인갤러리
박주애(주아이/11동양)	발이 없는 저격수	02.03 ~ 02.09	갤러리도스
서용선(75회화)	만물산중서용선繪畫	02.24 ~ 06.20	여주미술관
신정균(05서양)	아크로BAT Acrobat	02.18 ~ 03.14	아트스페이스 보안2
안영나(80회화)	FLOWER NO FLOWER - 꽃의 격려	02.02 ~ 02.09	노원아트갤러리
이민수(89조소)	순간에서 영원으로	20.10.10~21.05.30	피움미술관
이선원(75회화)	그림자 Shadow	02.17 ~ 02.28	M갤러리
이소정(석03동양)	경첩들	02.18 ~ 03.20	P21갤러리
이진이(10동양)	Ruminating 되새김질	02.06 ~ 03.09	오재미동갤러리
임옥상(68회화)	나는 나무다	02.02 ~ 02.28	갤러리나우
임철순(74회화)	상황에서 시원적 공간으로	20.10.09~21.05.30	피움미술관
장우진(97서양)	철, 소음, 구름	02.24 ~ 03.02	갤러리 도스
조인호(96동양)	유(遊)-원망근간(遠望近看)	02.18 ~ 03.03	아트스페이스켈리아